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모색 워크숍

진행 : 김진호(동아시아연구소 간사)

제1부

- 개회사
- 소장인사
- 총장 격려사

제2부

■ 제1주제

- 제주 「평화의 섬」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구축전략
강근형(제주대 교수)

■ 제2주제

-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모델선정 및 법·제도적 검토
김부찬(제주대 교수)

■ 초청토론자

사회 : 고충석(제주대 행정대학운장)

강만생(한라일보 논설위원)

송재호(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강원철(제주 경실련 사무처장)

신행철(제주대 교수)

고대만(제주교육대학 교수)

양덕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영기(제주일보 논설위원)

이봉만(제주시의회 의원)

김승석(제주도 정무부지사)

이지훈(법도민회 의원)

김영훈(제주도의회 의원)

임문철(서귀포 성당 신부)

문영희(제주YWCA 사무총장)

장성수(제주대 교수)

문인수(KBS제주총국 보도국장)

정대권(변호사)

부만근(제주대 교수)

장원석(제주대 교수)

서경림(제주대 교수)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성준 :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저히 워크숍을 위해서 이렇게 토론회 또 발표회에 응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썩 제한된 관계로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평화의 섬 문제는 연구차원 보다는 이제는 제주도의 큰 현안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다른 영역에서도 연구가 있었지만 저희 연구소 그리고 제주국제협의회 여러 쪽에서 그 논의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각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문제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 인가하는 의견의 장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고충석 행정대학원 원장이 급한 사정으로 사회를 못 봐서 제가 사회를 볼 때 다시 말씀드리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장으로서 여러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 조문부 제주대학교 총장님을 대신하여 홍성락 제주대학교 교무처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홍성락 : 총장님께서 출장중 이시기 때문에 대신 격려사를 낭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는 시대적 격변기에 서있으며, 이와 아울러 각국 마다 지적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적 공동화 현상이 활발하게 이어나고 있습니다. IMF체제하의 현경제 상황도 더 이상 폐쇄적인 체제의 경제시스템이 존립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준엄한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생존 전략도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치부심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는 다르게 정치적 이기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빈부격차 심화, 민족간의 갈등,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부상등 뚜렷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아직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2월 25일 새롭게 취임한 김대중대통령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를 약속한 정책이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우리 제주도의 자체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할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평화에섬 구상은 매우 중요한 시도인 것입니다. 물론 단 시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과 실행이 이루어 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실천전략을 모색해보는 이번 워크숍은 제주을 평화의 섬으로 천명하고 그 의의를 찾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주도가 더 이상 한국의 변방으로서가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확고한 위치를 갖는 의지를 담고서 이번 평화의 섬구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각계의 여러 토론자와 주제발표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니 오늘의 워크숍이 매우 만족할 만한 자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모조록 좋은 의견을 교

환하는 자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자리를 마련해주신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고성준소장님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김승석 정무 부지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승석 :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격려사를 부탁을 받지않고, 현장에 오니까 격려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오늘 워크샵에 참석하신분들은 동아시아 연구소에있는 교수님들하고, 제주대학에 전문교수님들 언론, 의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워크샵이 뜻있는 모임이 될걸로 기대 맞이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해양세계라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삼각연결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가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세계를 향해서 문호를 활짝 열고 관광적 측면에서 관광자유벨트 를 구상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 하자는 의지를 표명한바도 있고, 이와 아울러서 현 신구범 지사님께서도 구 제주도지사 공관을 평화의 섬을 구체적 실현을 위한 어떤장소로서, 활용을 해보고싶다는 말씀을 평소에 해오신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도지사 구공관이 남북평화회담의 장소로 이용되나든가, 아니면은 세계적인 평화기구들이 또는 관계자들이 제주도에 모임을 했을적에 제주도지사 구공관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평소에 해오고있습니다. 특히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도청내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아시아연구소의 관계교수님들하고 오늘이 모임이 있기전에 두어번 남나서 평화의 섬을 구체화하기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것인가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적이 있습니다. 오늘저도 이모임에 상당한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모임을 준비해주신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장 고성준교수님과 관계교수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제2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제사회는 고성준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고성준(사회) :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강근형 :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의 강근형교수 입니다. 제가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가 평화의 섬의 국제정치적 배경 및 구축전략인데요, 이것은 96년도에 아시아 연구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를 보시는 고성준 교수님 하고 또 제주대학교의 양영철 교수님 그리고 제가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평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중에 이 제목과 관련되는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주에 반정도는 제 생각입니다만 또 받은 우리 고성준 교수님하고 양영철 교수님의 주장이므로 제 혼자만의 주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평화의 섬 구상은 결국은 고르바초프 전대통령이나 클린턴, 하시모토, 강택민 이런수상들이 제주에 와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러면서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평화의 섬 구상은 결국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해서 한 반도와 또 세계평

화를 위해서 어떤 평화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어떤 꿈이있는 비전이 있는 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의 개념이 라든가 하는 것은 서론 중간입니다. 엄격하게 하면 평화지대로 한다거나 또는 중립화 중립지대로 한다거나 해야되겠습니다. 만은 우리 한반도의 사정상 주변국가들이 그런 것을 용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내세우면은 중앙정부에서 아마 무슨소리냐고 별로, 인지를 해줘 않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추해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분쟁해결 센테라든가 평화협력 센테로 제주를 만들어가자는 소프트한 개념의 평화의 섬 구상이 아닌가. 그 이상은 이것이된 다음에 또 이런 모임에서 논의하고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군사기지 설치의 좀 곤란하다. 비무장 비군사화 지역의 되어야하는 것은 우리가 강조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이라면은 중앙정부나, 주변국가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구체화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하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세미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생각도 해봅니다. 국제정치적 배경과 실천전략인데요, 국제적 배경은 주로 냉전이후 시대에 특히 제주 평화의 섬하고 관련되서는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의체구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제2장 제주평화의 섬 국제 정치적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 정치경제에서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 국가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국가간의 전쟁등이 없어진다. 평화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경제이익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위해서는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에 많은 경제협력기구 즉,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경제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안보면의 협력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하나의 전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얘기를 중간에 말씀해 놓았는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는데,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고 저극적 평화는 제도화된 또는 정의로운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은 국가간에 있어서 적극적 평화라는 것은 전쟁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질서 같은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은 법률이나 조약 같은 것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만들어서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는 이런 집단안전보장체제라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유럽 에서의 유럽안보협력회의라든가 나토는 동맹조약이지만 넓게는 집단안전보장체라고 볼 수 있는 데 아시아에서는 문화라든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종식이후에 보면 소련이라든가 중국도 개방정책이 나오고 있고, 또 서방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차 안보면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에서도 어떻게 하면 안보면에서 레짐이라는 개념이 국제정치학에서 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나 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국가간의 쟁점 핵무기다. 또는 경제문제다 하면 어떤 쟁점을 둘러싸가지고 국간의 협력이 좀 지속되는 것입니다. 즉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번 협력이 제도화되는 그런것에 레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안보면에 레짐같은 것

도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아세안 지역포럼이라는 것이 있구요. 아태안보협력회의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가 있는데 그래서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 집단안보 얘기도 했습니다만, 집단안보가 어려우면은 냉전이후시대에는 공동으로 국가간의 대화를 통해서 안보를 좀 이룩하자는 협력위주의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적 관계보다는 여러나라 즉 다자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안보문제를 해결해 가자. 이런 것이 오늘날에 국가간에 많은 협력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북아에서는 그럼 어떤것들이 있느냐.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90년7월해서 나옵니다. 캐나다의 조 클라크외무장관이 아태지역에서 도 북태평양 안보조약을 하자고하는 그런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의 한승주장관도 94년 7월에 남북한과 주변의 4대강국간의 동북아 안보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이것이 6자회담과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지속해나가자하면 이런 것이 조금 제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샌디에고에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세계갈등협력연구소가 주관해가지고 동북아시아협력대화가 추진되어갑니다. 이것은 정부간이 아니라 비정부의 학자들 또 관료들도 참여합니다만, 군장교들도 참여해가지고 한반도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시아 안보문제에 대한 신뢰구축조치 이러한 것에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 대화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안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동북아시아 관련국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가의 입장은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에서의 집단안전 보장이 라든가 다자간 대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시행정부까지는요. 그때는 냉전이 여전히 강했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개별동맹을 통해서 어떤 안보를 이루어가자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는데 클린턴이 들어와서 이것이 좀 바뀝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간에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전에 클린턴이 일본 방문을 했을 때 태평양공동체를 만들자 이런주장이 집단안전보장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이러한 집단안보협력체제를 좋아했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하다가 미국의 클린턴이 조금 유연한 반응을 보이자 일본은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미국이 혼자 동아시아를 완전히 안전보장을 지켜준다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대화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이고 러시아도 그런대로 고르바초프이후에 동북아시아협력을 많이 강조해서 적극적이고 다만 중국은 조금 유보적입니다. 중국은 원래 개별자위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고, 또 북한이 조금 소극적입니다. 이것에 들어가면 남북한 문제, 이런 것이 모두 주변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 때문에 북한이 소극적입니다. 그런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이 필요한 이유는 4페이지 위에 얘기드립니다만은, 냉전이후시대 미국이 과연 말로는 개입과 확장이다해서 인게이지먼트니 인라지먼트다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동아시아안보를 책임지겠다고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쉽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도력이나 이런것들이 불확실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일본과 중국간의 패권 경쟁이라든가 아시아에서 이게 굉장히 높아질 소지가 있고요 또 그동안 영토문제라든가 섬을 둘러싼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지않습니까? 남사군도문제라든가 북한의 핵문제 이런것들도 있고, 그러므로 이런것들이 나타나면 대단히 불안하니까, 다자간 안보협의체라는 대화협력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각국간의 어떤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러면서 안보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필요성 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축해 갈것인가는 첫 번째 다섯가지정도로 써놓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얘기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여튼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려면 한 개의 나라가 나서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리더쉽인데 미국은 가능할 것같고, 또 리더쉽이라는 것이 힘만가진 나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리더쉽 그걸같다가 오란 영이라는 학자는 지적인 리더쉽이다. 기업가적인 리더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국가나 약소국가도 먼가 좀하자고 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회담도하자. 어떻게해야한다는 방안도 제시해보고, 처음엔 안따라온다 하더라도 하다보면 좀되는 거아닙니까. 이것이 에이펙이 결정될 때 호주가 이런역활을 했습니다. 이런역활을 호주가 지적인역활을 발휘해서 에이펙이 성사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 제외해야되고,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을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 난민문제나 테러문제, 마약문제, 환경오염방지문제 같은 것을 내걸어서 어느정도 협력을 한다면 무거운 군축문제, 핵확산 방지문제 같은 이런것도 또 내세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될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번째는 이미 동북아안보협력 대화에서 나타난것처럼 정부간의 이게 쉽지않습니다. 민간기구 또는 민간단체를 활용한 그런방법으로 그래서 그 방법을 트랙투 방법이다 제이 트랙방법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세안에서 했던걸 우리가 배워야한다는 것입니다. 아세안이 처음에는 경제협력만 하고 안보대화는 절대 안할려고하다가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압력이 있고 또 소련이나 미국이 불확실하니까 자기네끼리이제 안보협력 대화를 하자해서 하는 것이 A.R.F라해서 아세안 지역포럼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꼭 아세안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업셋하러가고 있고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갑니다. 이래서 이런 참여를 제안하지말고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올 수 있는 식으로해서 시작해보자. 네 번째는 다자간 안보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양자관계를 해치면 안된다. 부시행정부때까지 반대했던 이유가 만약에 아시아에서 집단안보체제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미일안보조약이나 한미안보조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곤란하다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그냥 인정하면서 협력대화책으로 하다가 궁극적으로 안정보장체제가 되면은 그런것들이 약화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관련된겁니다만은 아몽은 이걸 제도화하게 위해서는 정상참여 정상들간의 정리 회합이 필요하고 또 삼국설치라든가 분쟁방지 센터, 이런 것을 점차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럽에 경우를 보면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사무국이라든가 분쟁방지센터, 분쟁중재재판소, 이런거를 어느 한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나라에 꼭 수도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동북아시아지를 하면은 한국에도 뭔가 생기고 일본, 러시아 조금씩 몇개 나눠서 있을거 아닙니까. 그럴때 제주도에 이것을 유치해야된다. 그러기 때문에 동북아안보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주에 평화의 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자회담이 적극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도 계속하겠다고 대통령 취임연설에서도 했었고, 김종필씨를 중국에 보내가지고 육자회담도 제외하고 했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점차 구체화되면 이것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동북아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게 저의 생각이요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제주의 평화의 섬을 뭐 하겠다하면 그런것중에

무엇하나를 달라고 중앙정부에 할수도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 국제정치적 배경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화의섬 구축전략을 해결 것인가 이것은 구상의 필요성은 앞의 서론에서 좀 말씀드린거고 세가지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많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것입니다. 다만 고성준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뭐냐하면 7페이지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나온 그겁니다. 지정학적 이유에서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남북군축 협상도 되가고 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판문점에 배치했던 공세형의 무기를 후방배치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후방으로 가져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게 잘못하면 제주도도 올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고 또 필리핀의 기지가 미국에서 철수했습니다만 미국에 태평양전력들이 또 오키나와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않습니까 미군나와라 이러니까 이걸 좀 이제 나와가지고 제주도도 옮길 모슬포 군사기지 얘기가 나와서 막 대모도 했던 몇 년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미리 평화의 섬으로 선포해가지고 절대 그런 것은 안된다고하는 공세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화역사적으로 전통이 삼무정신이라든가 이런면에서 평화의 원초적 정의론과 닮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추구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또 4.3사건을 우리가 비극을 치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당위론적 태도로 평화의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적극적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로운 복지 공동체,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은 그러기위해서는 평화의섬이라는 것을 내건다면은 좋지 않겠냐하는 점이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축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세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중앙정부에게 우리가 좀 해주도록 요청해야되는 중앙정부에 역할, 두 번째는 도, 지방정부가 어떤일을 해야될건가. 세 번째는 시민들,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결국 이것은 후원자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든가 주변국가들이 이게 또 뭐 한국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또 반대할수 있으니까 이 평화의 섬 선포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조치지 기존의 어떤 안보 정책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국가에 주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겁니다. 이것을 중앙정부가 해결해 줘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는 여기에 가)항에서 U.N 산하기구등 국제기구에 제주도 유치는 많이 얘기한겁니다. 다만 이 동북아시아에 U.N산하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분소같은거라도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과정에서라도 제주도에 이런 사무국같은 것을 설치해 주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 것입니다. U.N에 그 가장 큰 목적이 평화유지니까 제주의 평화의 섬하면 그 어떤 그 기본 목적에서도 일치되기 때문에 제주에 이러한 것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 제 친구가 있는데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유네스코도 동북아시아쪽에 뭔가 하나 설치하려고 한답니다. 제주도도 그거 한 번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몇번 들었는데 유네스코 본부에 얘기해서 지역분소 같은 것을 제주도쪽에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치되면은 제주가 세계에 금방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또 우리의 관광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북아 다자 안보 협의체가 될 때에 관련된 기구 본부나 회의 이런걸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결국 그 동북아시아에 어떤 제네바나 비에나가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평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회의의

무국의 유치 8페이지 중간입니다. 또 지역분쟁 해결 센터라든가 또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평화지도 연구소, 연수원 이런 것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 중요하게 다)번이 그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의섬 특별법을 요청해야한다. 우리가 요즘 4.3 특별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평화의섬 특별법을 특별히 제주도에 어떤 평화의 섬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집행 전략은 평화의섬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상회담 장소란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국민이 올때에는, 예를들어 클린턴 대통령이 왔었다하면 미국의 날이다 또는 클린턴 주간이다 하는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이미지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페이지의 나항입니다. 평화의 섬에 대한 로고, 하와이 같은 경우 state of aloha 이래가지고 이 로고를 아주 문향을 멋있게 해서 많이 쓰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평화의섬 해가지고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뭐 관공서나 여러군데 쓰면서 알리는 역할, 또 노래를 보급해서 아무나에게 맡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응모를 해서 우리가 평화의섬을 만드는데 응모를 해주도록 하면 전국적으로 선전도 되고 이런것도 우리가 홍보효과를 위해서 해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평화의 달, 평화 주간, 평화의 날, 그 4월이나 5월을 잡아가지고 평화의 달이나 주간 평화의 날로 선포하자. 4.3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월을 평화의 달로 하면은 4월 3일 을 평화의 날로 한다든가 또 그주간을 평화의 주간 4월을 평화의 달로해서 행사같은 것을 치루면은 알려지지 않을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평화에 대한 시설을 평화공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키나와나, 나가사키공원같이 우리도 평화공원을 설립해서 4.3위령탑같은 것도 많들고 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이미지를 알릴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박물관, 민속촌, 평화의 섬 연구소 등과같은 것은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까만은 평화의 섬정책이 활발히 되가지고 그거에 참여하는 각기업들이 이익이 돌아가면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내도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개인들에게 평화의 섬 통장 갖기운동이라든가 또 신용카드회사들과 연계해서 일정의 비율을 평화의 섬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 그리고 종교단체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예산은 불용액 예산을 쓰다남은 것을 평화의섬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연간 회계의 5%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예산 추진조직에서 사업을 직접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이 조직결성에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도보다는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도민의 가교라는 측면에서도 평화의섬 이것은 주로 도의회가 중심이돼서 추진조직을 만들고 도의장님이나 특별위원회위원장같은 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다음에 제주후원회 결성은 섬화의 섬만은 아님니다만은 제주개발이나 평화의섬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제주도사람들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제주도민도 포함시키고 그외 제주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여론선도층을 제주명예도민으로 위촉해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중앙정부에 여러가지 요청하는 로비라면 좀이상합니다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 교육같은 것,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평화교육같은 것, 국제이해교육등 이런 것을 통해서 평화의 섬의 당의성을 많이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민간단체는 처음에는 도나 의회가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정도 활성화되고 구축이되면 궁극적으로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해야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끼리 네트를 결성해 가지고 운영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가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아태시대가 온다 또는 해양중심의 시대다.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착해야될 것이아니냐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라고 하는 것을 평화의 메카로 만들어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세계평화의 단추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시작을 제공하는 어떤 큰뜻을 가진 운동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위해서 맨마지막에 이런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도민이 평화연장이냐, 평화의 현장을먼저 선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준(사회) :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부찬교수님의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모델설정 및 법제도적 검토 부분의 발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이 김부찬 교수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강교수 발표는 그래도 한 거의 1년이상 양영철 교수하고 저하고 같이 토론하고 연구를 해온 결과의 요약인데 김교수님한테는 저희가 열흘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번 고사를 하다가 할 수 없이 떠밀어 맡겨서,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연구를 하게 해서 좀 발표를 하게 해야하는 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문제의 제기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하나의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김부찬 교수님의 발표를 20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찬 : 안녕하십니까? 김부찬입니다. 줌전에 제논문의 부실함을 변명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나름대로 그동안 제주의 평화의 섬구상 및 실천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온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동아시아 연구소에 굉장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제주도민의 정신과 의지가 최근에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한 실천전략의 모색을 통해서 표출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소망이나 이상적인 그러한 기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만 될 과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평화의 섬모색을 위한 실천전략은 상당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서 그 의미와 가능성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속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평화의 섬 구상속에 담았을 때에 과연 그러한 구상이 현실적으로 실현될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이나 발표된 제안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따지고 보면은 성격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고 그러한 것이 한꺼번에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평화의 섬 그자체가 담을 수 있는 내용 물론 굉장히 다양한 수준이 될 수가 있겠고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지만 과연 그러한 것중에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어떠한 내용과 구상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끼리만의 어떤 논의로써 제한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전에 강교수님 게서 발표하셨지만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려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과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예 그리고 동북아 내지 아시아 태평양 또는 범세계적 범주에서의 국가들 그 중에서도 강대국들의 관심과 의지가 거기에 관련되어 지지않으면, 무의미한 구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그 범주가 제주도의 그런 범주를 벗어나 가지고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또는 좀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이유는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상이 갖는 의미 또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내적 요인만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 대외적인 또는 국제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전에 강교수님께서도 국제정치학적 배경을 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제주에 평화의 섬이라는 것이 제주민의 의지만으로 또는 제주민의 노력만으로 혹은 제주민의 시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섬, 평화의 지대가 갖는 그러한 의미가 따라서 대내적, 대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의 섬이 실천이 돼야하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전의 발표내용에도 들어있었습니다만 과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만 돼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목적이 관령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주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는 측면에서 평화의섬 구상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제주의 평화의섬 구축을 통해서 적극적인의 평화 실현에 제주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국제적인 맥락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의 섬 내지 평화의 섬을 포함하다기 보다 넓은 의미의 평화지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주민의 구상만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관한 국제적인 아니면은 세계적 사례가 있는지 하는 것이 충분히 연구가 되고 나서 제주의 평화의섬 구상에 대한 실천전략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 평화지대의 포함되어 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화의 섬은 섬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독특한 개념이라고 하지만것은 본질적으로 평화지대에 포함되어지는 개념으로 봅니다. 평화지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터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 중립국이라고 하는 형태에 이루기 까지 매우다양한 의미와 수준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평화지대에 관한 개념은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평화지대의 미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평화지대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구축하기위한 여러 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억지적 전략을 통한 평화론이 되어서는 안되고 군사주의와 군비경쟁을 정당화하는 안보이데올로기여서는 안되고 군수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군비축소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러한 원칙은 배제가 되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평화의 새로운 의미내지 적극적 평화관이 들어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의 섬 평화의 지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측면이 아닌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 문화 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법제도적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넓은 의미의 평화지대화 라고 할 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치적의미의 평화지대가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냐 하는 것은 나

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 의미에서의 평화지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평화 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력 및 군사무기의 제거를 통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의 억제 및 평화의 확보를 통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국가 또는 지역에 비무장 및 비군사화를 의미하며 평화의 창출을 위한 조건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비무장 또는 비군사화 혹은 중립이라고하는 그러한 개념이 그리 간단한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점은 알고서 앞으로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에대해서 우리가 개념정립을 할 때에 이점을 명심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작은 글자로 비무장화, 비무장지, 중립, 중립국, 영세중립국 더 나아가서 비핵무기 지대, 비핵화 이제 이러한 개념에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명심해야될 몇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비무장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장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비무장화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영역에 군대 또는 무기를 주둔 또는 배치하지 않거나 군사적 시설물을 설치 유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무장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개념은 국제적 보장에 의한 예를 들어서 국제법적 장치에 의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립의 개념이 전시적 상황속에서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 아니면은 전시를 포함한 평화시에도 그러한 것이 어떤 법적 제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갖아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특수한 성격을 규정짓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에 평화의 섬구상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중립화의 개념입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나 국제조약을 통한 중립화가 보장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예를들어서 자체 중립화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에 평화기구를 유치하고 국제 분쟁 해결 센터를 유치한다는 개념은 제가 보기에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중립화의 개념이 제주지역에 보장될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기구의 유치나 분쟁해결센터의 유치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쉬운거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의 장소로서 제주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법적체제를 규정짓는 규제적정이 엄존해있고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해있는 한의 있어서 제주지역에 남북회담의 장소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동북아의 안보협력레지매그램 중심무대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어느정도의 그런 법제도적인 성격의 평화지대를 제주가 선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저는 최소한 자체 중립화 또는 중립주의의 표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그러한 정도의 어떠한 획기적인 그러한 선택과 그 어떤 의지가 정착을 통해서 구현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제주지역에 합당한 모델을 설치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론부분에서 말씀드린 평화의 섬 내지 평화지대에 선포와 관련해가지고 범세계적으로 우리가

참고할만한 선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21페이지 22페이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적인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 무장화 증립지대, 평화지대 또는 평화자유 증립지대, 중간 와중지대, 평화협력지대, 이러한 것이 전부다 넓은 의미의 평화지대 개념속에 포함될수 있고 평화의 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선례중에 그 어떠한 것을 참고로 해서 선포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남북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활용방안 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말로만의 비무장지대이지 사실상 중무장지대 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중무장 지대를 본래적 의미의 비무장지대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다시 말하면 비무장지대에 평화적 이용 방안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물론 북한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 거기서 제안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을 통해서 제주도가 하고자하는 그러한 역할이 그러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우리가 참고 할 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나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북회담의 장소로 제주도가 활용되어진다고 하면은 최소한 현재 남북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정도의 그러한 법적 지위를 제주도가 갖추고 제주도가 비무장화 되지 않으면은 과연 북한의 입장에서 제주에 와서 회담에 응하고 이제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의 섬 또는 평화지대의 모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째가 가장 본래적 의미의 증립화 또는 비무장화를 통한 모델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군사적 정치적 의미의 평화의 섬 또는 평화지대의 설정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비정치적의미의 평화의 섬에 구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집약적 개념으로 평화 및 경제개발특구의 개념으로 좀더 이제 줄여서 말하면 경제특구화를 통해서 평화번영복지의 섬 모델을 우리가 취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특구를 통한 평화번영복지의 섬 모델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의 내용을 좀 더 개정해가지고 이것을 평화번영 복지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드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 비정치적 의미의 평화의 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또 본래적 의미의 평화를 확보하고 또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평화에 대한 그러한 반대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화의 섬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평화의 섬 개념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평화의 섬 모델은 그러한 경제적 의미의 초월한 어떻게 보면 좀 거리를 둔 학술문화 관광 차원에서의 평화의 섬 모델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보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별도의 평화의 섬 모델로 설정해 봤습니다.이것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본래적 의미의 평화의 섬을 선포하든 아니면 경제적 의미의 평화의 섬을 선포하든 이러한 학술문화 관광차원에서의 평화로운 그것과 결부시켜서 서정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의미의 평화의섬이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학술, 문화, 관광차원에서의 평화의 섬모델, 이것만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추진해 갈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립화 비무장화를 통한 평화지대 모델 또는 경제특구화를 통한 평화번영 복지성 모델 또는 학술, 문화, 관광차원에서 평화의 섬 모델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가? 또는 중앙정부가 협력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별도로 검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것 즉, 평화기구, 분쟁해결 센터, 평화연구소, 국제물류기지, 자유무역지대 이러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추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델설정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단계적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정신을 지닌 제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제주의 비극적인 4.3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대내적인 요인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외부적, 국제적 요인을 기초로 해서 제주에 평화의 섬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특히 정치적 의미에서의 중립화 비무장화를 통한 평화지대의 실천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전적으로 비정치적 지원만으로 평화의 섬 구상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본래적 의미를 퇴색 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제적 보장을 통한 완전한 의미의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해서 노력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평화의 섬 내용을 보다 완전한 내용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학술, 문화, 관광차원에서 평화의 섬은 큰 어려움 없이 제주도 스스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평화의 섬 구상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게 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점은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제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제주 스스로가 안정과 평화를 확고히 보장받으면서 나아가서 국내외적으로 평화체제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면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평화의 섬은 정치적 의미의 그러한 본래적 의미의 모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의 평화의 섬의 구축을 위해 우리가 또한 어떠한 단계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국제조약을 통한 국제기구의 보장을 통한 그러한 측면에서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말고 좀전에 강근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좀 느슨한 그런 형태에 안보협력 대화체제에 대한 활성화를 제주에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의 평화의 섬 모델이 중간적인 단계에서 규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처음부터 평화기구나 문제해결 기구를 유지하겠다 하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안보협력 대화의 창구나 장소에 중심적인 무대로서 제주도의 역할이 규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제주도가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가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노력이 한반도 주변국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제주 스스로의 평화 이미지에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한 의지를 다져 나간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제주의 평화가 달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상적인 평화의 섬이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 고성준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 5분정도 coffee time을 하겠습니다.

토론 : 강만생

한라일보의 강만생입니다. 5분정도가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두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우선 개념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어 가지고 두분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근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의 섬이란 개념과 기부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래적 의미의 평화의 섬,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본래적 의미의 평화의 섬은 의미가 서로 같은가 아니면 상이한 개념인지 평화의 섬이란 개념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 평화의 섬을 구축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당위적이고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또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전략방안들이 너무 이상주의적이 아니냐 아이디어 하지 않으나 중앙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 지방자치 단체나 국민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그런 실천전략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탈 냉전체제에서의 스스로 평화의 섬 구축방안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탈 냉전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은 남북대치라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평화의 섬 구축방안은 냉전체제하의 있어서의 방안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해소될 탈 냉전이후 다시 말한다면 남북화해 이후에 있어서의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한반도의 현대사는 뭐 우리의 현대사입니다만은 세계사의 유래가 없는 동족상잔이라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 역사가 해방이후 지금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과거의 체결되었던 무슨 남북합의서와 같은 그런 합의만으로는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같은 그런 선결적인 과제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선결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전략 방안은 모색될수 없는 것인지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는 흡수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난 정권과는 다르게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 전 정권에 비해서 대단히 강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남북이 대치되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한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근형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평화의 섬 구축 방안 뭐 어떻게 보면은 유연하게 평화의 섬을 완성시켜 나갈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

니다만은 그러나 막연히 국제기구를 유치한다고 해서 과연 국제기구가 유치 될 수 있겠느냐 기존의 국제 기구를 유치할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며 또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신설 국제기구를 설치 하는 방안 또 신설국제기구를 유치할수 있는 이런 방안은 혹시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또 제주에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에 어떤 메리트 를 그들에게 줄수 있을것인지 전혀 메리트가 없는데 기존에 다른지역에 설치되었는 국제기구가 제주도에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을 것입니다. 그런 메리트 부분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편은 임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봅니다. 마지막으로 김부찬 선생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국방 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아까 김부찬 선생님께서 법률적인 또는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델들이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국방적인 이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차원에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비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화의 섬 모델을 구출할 수는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 고성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토론이 다 끝나고 발표자 두분께 종합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잠깐 답변하는 시간을 드리는 걸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경실련 사무처장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 경실련에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강원철입니다. 지금 두분 선생님께서 제주가 왜 평화의 섬이 되어야되는가에 대해서 대략 세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서 아주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제주도에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적 유산과 전통, 세 번째는 제주사회의 정의와 공동체복원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평화의섬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세가지 점으로 대충 요약하고 있는데 일단 저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 내용에 중요성을 두고 싶은데요 일단 평화라는 개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단순하게 아까 선생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전쟁의 부재라든지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복원 되고 그 속에서 삶의 질을 좀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평화의 개념이 좀더 구체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하고 병행을 해서 제주도 사회가 좀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평화의 섬다운 그런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생각에는 제주사회하고 환경이 녹색화가 돼야 된다. 즉 다시말한다면 제주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연적으로 본다면은 제주지역의 자연환경이 상당히 아름답고 그리고 산림자원도 풍부한 편입니다. 그런것들이 자치단체에서 재정확보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파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해안절경도 마찬가지로인데요 해안 생태계가 풍부하고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제주 해안 지역이 무차별적으로 훼손 되고 있는 것도 현실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좀더 녹색 자원화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복원 시켰을 때 비로소 제주지역을 하나의

평화의 섬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길로서 작용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야기 하고싶은 게 무엇이나 하면 도시 계획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다른 도시와 다를 비없는 회색 콘크리트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특징적인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꾸어나가야되고, 가로수라든지 건물의 형태들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교통문제가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교통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자동차위주로 되어왔는데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녹색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펴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논의 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제주 지역사회에서 정착이 되어 나갈 때 그것과 병행해서 제주지역을 평화의 섬으로 같이 선전하고 같이 이야기 할 때 비로소 제주지역사회가 진정한 평화의 섬의 토대가 이루어 지지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준(사회) : 예 고맙습니다. 평화의 섬 문제를 주로 내적운동, 환경운동과 관련시켜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주 교육대학의 고대만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만 : 안녕하세요? 제주교육대학교 고대만입니다. 저는 평화의 섬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애기의 초점이 평화로운섬 쪽으로 저의 논의는 귀결 될것 같습니다. 평화는 폭력의 부재인데요 폭력을 우리는 직접적 폭력 이든바 물리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 이든바 구조적 폭력으로 볼 수 있고 직접적 물리적폭력이라는 것은 테러라든지 전쟁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간접적이고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사회구조적인 지배체제의 고통을 가하는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불평 등의 문제라든지 또는 차별의 문제, 성차별 이라든지, 인종차별 이라는 그런 문제라든지 일종의 사회부정의에 관련된 측면 그다음에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소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강근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 물리적폭력의 배제와 동시에 간접적 구조적 폭력의 배제 이게 이제 토달해서 적극적 평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평화의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6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삼무, 3D, 3S이런식으로 6D라고 표현을 해쓴 데 그것을 얘기 하자면 첫째는 비핵화입니다. 그다음에 비무장화 비군사화, 또 비극화조 양극단의 극한적인,그리고 대립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 또는 발전, 또 민주주의, 또 자연에대한 깊은 존경이 리게합쳐서 6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미국에 데이비드 바라쉬라고 하는 학자는 적극적평화의 실제 또는 내용에 대해서 대략 다섯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인권의 신장을 얘기하고 있고, 완전한 환경보전, 경제복지의 실현 비폭력, 인격개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인격 개조부분입니다. 다시말하면, 인격적, 지적성숙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저희 평화의섬이 평화로운섬, 다시말하면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열어 나갈 것이냐 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평화의 마인드를 어떻게 함양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기구를 유치하고 설립하고 한다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기구 또는 조직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싸운다든가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마인드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또 여기서 평화의 마인드를 함양시키는데 있어서

교육적 노력이 굉장히 요청되는 것이다. 평화의 마인드는 결국은 사랑이고 자비인데, 다시말하면 받고열악이라고해서 고통은 제거하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평화의 마인드, 자비 사랑의 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다른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적대의식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 상호이해는 어떻게 존중시킬 것이냐 그리고 공생공명의 세계인류질서를 어떻게 함양할 것이냐, 평화얘기가 이상적인 냄새가 짊기 때문에 이상주의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시말하면 초, 중, 고, 대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국제이해교육이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특별히 교과목을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교과목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칠 때 제주도적인 소재는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역할을 굉장히 하는 것이 종교단체죠, 종교에있어서 기본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할 것 같고 건전한 시민 단체에서 그런 활동, 참여을 통한 평화의 마인드의 학습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평화 교육센터를 건립해서 평화에대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평화에대한 교육 평화교육의 목표, 방법에대한 연구도 하고 그것을 잘 보급하기도 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하나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센터가 중심이 되서 화합의 공간을 만들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내용중에 평화공원내에 평화 센터를 설립해서 평화의 달 평화의 주간에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속에는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기서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은 각종세미나 활동이라고 하든지 또는 문학 활동이라든지의 활동이 산발적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달 평화의 주간에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연구한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평화를 학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 제주도민들이 평화의 마인드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외부사람들로 하여금 또그것을 보면서 평화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기구센터가 기구가 큰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하되 기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같은데도 평화교육센터같은 것들이 있는 데요, 그런 평화교육센와의 네트워크의 교류을 통해서 서로 평화의 마인드를 교류을 하고 학습을 하는 그런식으로 평화교육센터가 그런식으로 구실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성준(사회) : 제주신문 논설 위원으로 있는 고영기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영기 : 조금 늦게 와서 발표자의 자료를 정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동안에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섬관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발표자들이 주제발표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연구가 진전되어 있고, 상당히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있구나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상과 현실이 관련 평화의섬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가능하냐 현실의 그걸할 수 있는 실천방법 같은것에대한 고민도 나타나있고 또 괴리같은 것도 여기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어 있고 그런 하면은 구체적으로 액션프라젠으

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제발표자들도 충분히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치하면은 구름잡는 이야기가 될것이 아니냐, 누누히 주제발표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화의 섬을 제주에서 논의하게 된 어떤 계기가 고르바초프의 한소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만 회담을 한 장소로서의 하나의 이벤트지 평화의 섬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화 정치적인 의미에서 제주도가 과연 정치적으로 말하는 분쟁해결이라든 소극적 평화의 보장을 위한 그러한 평화의 섬으로 가능한 것인가하는데에는 큰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이거나 지정학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하고 그러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한국의 국력도 그렇고 이걸 하려고 하면 한국이 국제기구를 주도하고 그걸 가져오고 해야 될텐데 지금 중요한 정치적인 것들은 동북아도 좋고 세계도 좋습니다만은 미국의 뉴욕에 유엔이 있고 하다면은 그 부담이라든지 국력이 바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네바나 빈이아가 나옵니다만은 영세중립국들이 되어있었고 또 그것은 거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교통이라든지 하는 기본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위치하는 거나 교통이나 모든 것을 갖고있어서 그런 것이 되는데 제주도에 과연 정치적인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여기 주제발표한 것과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문화적 사회적 지역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제기구의 상주기관이 여기와서 있어야 하는 데 그것을 유치해올 수 있느냐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주도에 그런 것을 두겠다는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겠느냐 그리고 가져온다고 하면 도체체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나를 조사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적인 국제기구가 있고 어떤 것들이 제주도에 올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조금더 조명되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개념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국가가 구체적으로 정통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평화라는 것을 내세워야 되고 평화의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지역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관광주도형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수십년이 됐습니다만은 유엔에서 관광이 평화에 이르는 페스포트라고 해가지고 그주제를 정했던 해가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달려만이 아니라 국제친선이라든지 이런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수교국이나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개방이 됩니다만은 그사람들이 이데올로기시대나 냉전시대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삶들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왕래 관광을 통해서보니 상당히 상당히 거리감이 좁혀졌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비전으로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만들어야겠다는 비전과 목표와 이상은 반드시 가져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중간까지도 제주도에 공군 기지가 오지않을 까하는, 근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은 또 남부 해군 사령부가 온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기위해서라도 해야되겠고 이걸 큰 비전으로 내걸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평화의섬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대통령이 어떤개념으로 평화의 섬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주막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교수님이나 김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그러한 목표를 내걸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말하자면 관광을 중심으로한 실현가능한 하나의 경제적인 것, 사회, 문화, 종교 등 여러 가지 이러한 평화의 섬으로부터 문명충돌관계도 있고 이러한

실현가능한 것으로 부터 뭔가 해나가야겠다. 단계적으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갈 수 있다면 실현가능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지 구름잡는 식으로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컨벤션센테등을 중심으로 해나가면서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한 경제, 문화, 종교 등 제3섹터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고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그리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어 하는 이유로 가까이는 삼무정신과 4.3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 이것가지고는 좀 모자라고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구체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 부터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다른 발표자도 말했습니다만은 어떠한 선례가 있는 조사해야겠고 제네바나 비엔나가 어떻게 하나의 평화로운 지역이 됐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는 등등의 하나의 모델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평화의섬의 개념을 창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준(사회) : 예 고맙습니다. 관광 특히 제3섹터를 통한 평화의섬의 달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체계있는 연구가 우선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김승석 정부지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승석 : 먼저 강근형교수님하고 김부찬교수님하고는 오늘 이워크샵을 하기전 두어차례만나서 평화의섬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위한 대찬을 패스했습니다. 다만 저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다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바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점을 도입장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가 정부부지사로서 도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평화의섬에대한 개념 문제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실천적인 개념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 가 있는데 이론적 개념은 비무장 비군사화르 하겠다는 겁니다. 도입장은 이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평화의 섬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평화의 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김부찬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제특구화를 통한 평화, 번영, 복지의 섬 또는 학술, 문화, 관광 차원에서의 평화의 섬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세계적인 관광지를 내세워가지고 과연 제주도가 세계의 유사한 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번영과 복지가 보장되는 섬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신구범도지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단순히 세계적인 관광지만이 아니고 제주도가 세계경제의 어떤 움직임의 한 축이 될려면은 경제특구화가 되어 되지 않겠느냐 다른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일국양제로 있습니다. 그외 에도 상해 그리고 앞으로 대만이 중국과 통일문제가 해결이 잘 된다면은 대만도 홍콩과 같은 위치로 가지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중국과 일본에 가운데에 놓여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홍콩, 대만 상해등과 같은 경제특구지역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본을 보니까 약 미화 이천억달러 정도 되는 경제특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고 일본도 오키나와를 특별 자유지역으

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화 5조엔을 투자한다고 했고 우리나라 돈으로 60조입니다. 일본도 오끼나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홍콩, 대만, 상해 등을 경제특구로 개발해했을 때 제주도가 단순 관광지로 살아 남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효과로써 외국 자본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효과를 노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제주에 왕래가 많아질 것이고 그에따라서 국제적인 상거래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동중국 벨트 일본 오끼나와와 연결되는 동중국해의 벨트에 들어가자, 즉 경제특구화를 해보자. 경제특구에 들어가자면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등 이러한 법제도화적 측면에서 경제특구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줄것이나, 그렇게 되면은 외국자본이 유입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제주는 관광만이 아니고 국제상당과 관광이 연계된 섬으로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노리고 대통령공약사항을 구체화 해보겠다는 내부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비무장, 비군사화라는 평화의섬 개념하고 대치되는 문제도 저희들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1세기에 남북통일 된다는 전제하에 있다면은 해군 군항으로서의 가장유력한 진해항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양시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해군 쪽에서도 제주도를 앞으로 동지나해 라든가 동남아시아쪽 일본쪽으로 나가는 군항의 중심지로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주도가 화웨이 처럼 자유무역항과 군항을 겸용하는 곳으로 이용된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는 이론적 개념인 비무장, 비군사화라는 평화의 섬과는 상치되지 않느냐하는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고성준(사회) :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정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도정에서 평화의 섬문제를 보고 있고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얘기에 일단을 저희들이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 김형운 의원님께 토론을 맡기겠습니다.

김형운 : 제주지역이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시대의 중심축으로 놓여 있고 세계평화를 할 수 있는 일정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데 대해서 발표하신 선생들과 견해를 달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제주지역이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어서 인류가 공존 번영을 하고 제주도민의 명예를 높이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에도 저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몇가지 전제라고 할까 또 원칙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우선 아무리 여려가 배경을 논하면서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고 못박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 따라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 자국의 논리로만 살아남지 못하드시 또한 자국의 논리를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의섬 구상이 이해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촛불이 역할을 할려고 하면은 외부의 거센 바람이나 도전은 막아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으로 김대중대통령 계서도 대선공약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의 전략으로 대두를 평화의 섬구상으로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직항로가 개설 되고 비자면제 지역으로 또 두지역을 면세지역화 시키다보면 제주도

자체가 국제적인 범죄조직이나 마약, 향락, 퇴폐산업이 만연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관광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주도착민들의 토대는 고용중대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민들에 대한 저항도 있을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평화지대의 논의는 좀더 많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역사적으로 제주도가 한반도 내에서 받아왔던 근현대사의 수탈이나 소외 이러한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을 하는 그런방안이 나와야 평화의 섬 논의가 더욱 활발 질 것이 아니냐 조선시대부터 끊임없이 일어 났던 이재수의난 등 끊임없던 민란 또 일제시대에 일본의 침략과 수탈에 대한 얘기 해방후의 4.3에 대한 문제 또 최근의 개발과 보존의 갈등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한반도의 모순구조라든지 지금 분단상황입니다만, 또는 불평등 또 비민주적인 요소가 아직도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하셨으니까 이런 비민주주의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가 될 것입니다만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제주에 평화의 섬을 만들어 줄려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모든 가능한 요소들을 해소시켜놓고 또 일정한 지역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다고 해도 선단순히 무기 반입을 금지 시키고 또는 퇴폐산업같은 것을 반입금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과연 제주도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국제적인 또 섬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는 요소들을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성준(사회) : 예 고맙습니다. 평화의 섬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평화의 섬으로 가는 과정의 새로운 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리고 대만에 있었던 2.28시점에서의 국제 회의 주변 지역에서의 평화의 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주YWCA사무총장님을 하고 계시는 문영희사무총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문영희 : 참으로 환상적이고 의미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유감은 원래 평화의 섬 선포내지는 구현을 위한 노력은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에서 출발을 해서 학계에서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정부에서 노력하는게 순서 인데 저희 시민들은 사는게 바빠서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제질서에서의 평화라는 개념은 저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몹시 이기적인의미로 생각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평화의 섬은 세계질서 속에서 제주섬이 어떻게 살아 남느냐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평화의 섬에 관계해서 논의할 때 제주가 살아 남기위한 전략이 아니면 순수한 평화의 문제냐, 그 개념 정리가 첫 번째 되어 된다고 생각 합니다. 평화의 섬 우리가 구현을 위해서는 또 한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지적을 다 하신 문제였고 김부찬 교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짚어 봅니다. 비무장화 평화지대의 국제적인 인정을 제주가 어떻게 따낼 것인가? 우리가 평화의 섬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실효가 없는 이야기 이고, 두 번째는 국제질서속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오키나와 섬이나, 대만섬이나, 발리, 태국 각 섬들이 살아남기위해 전략을 구상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각국의 이기적인 측면과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바는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현실이 남북분단의 현실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치 군사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평화의 섬구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현실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인 외교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국제적인 전략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점점 해 봐야 겠고, 국내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화의 섬을 선포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아무리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찬 교수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자간 협력이라든지, 협조 그러니까 안보, 문화, 경제, 평화, 국제기구 유치 이러한 것들이 한거리에 얻어지는 완벽하고 다각적인 평화의 섬을 구축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이미나, 아니면은 학술, 문화, 관광적인 구체적인 모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김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평화의 섬구현의 목적이 제주도가 살아 남기 위해서라면 제주도는 개방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지적하신대로 마약, 매춘 그러니까 우리가 표방하는 것은 평화지만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불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매춘, 퇴폐산업, 테러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것이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리도민들이 받을 피해, 의식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까지도 점점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준(사회) : 예 고맙습니다. 한 여섯가지로 문제제기도 해 주셨고,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문인수 KBS총국 보도국장 차례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인수 : 예 문인수 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앞에 두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듣지 못해서 여기 분위기가 얘기할 수 밖에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의 논의 내용을 잠깐 논문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전부다 훑어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강만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유엔기구의 제주의 유치라든가 또는 관계된 안보기구나 회의, 이런 것을 제주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 또 아태지역에 군축회의 사무국을 제주에 유치한다하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럴듯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저고 이제 그런것들이 제주에 유치기 되가지고 하고 한다면은 제주에 평화구축이라든가 또는 제주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제주가 많은 발전을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같은 바업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유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가서 우리가 벽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5년동안 취재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느낀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25년동안 지켜본 제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것이 깊이 느낀 것인데 저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4.3으로 갈라진 그런생각을 아직까지 수습을 못하고 있고 과거 제주개발 특별법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갈등구조가 아직까지 10년이 넘게 남아 있는 가지고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바탕위에서 우리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

이겠는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화의 섬 구축이라는 전략모색 이것도 물론 중요 하지 않은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런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도민적 기반합의의 바탕을 우선 이루어 내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선생님이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개념설정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라든가 아니면 접근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하건대 우선 평화의 섬이 그 개념을 분명히 정한 후에 그 개념을 통한 도민의 공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화의 섬이 주는 메리트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는 걸 확고하게 심어줌으로써 평화의섬이 과연, 제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는 것들이 우리 도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아야 만이 평화의 섬 논의가 가치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아까 김승석 부지사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주의 경제특구 이런 것은 설치해서 여기에 자본을 유치 한다든지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도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투자자유 지역을 영종도로 지정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것도 사실상 그 이면에는 제주라는 곳은 도민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볼 때 가장중요한 것은 도민합의가 바탕이 되지않은 그런 논의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두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셨고 또 제주국제협의회가 이워크샵을 후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도민의 논의를더욱 깊이있게 전환 함으로서 보다더 값진 논의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준(사회) : 아주 저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우리사회의 사회의 갈등 구조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주었고 무엇보다도 도민적인 합의라는 작업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 상당히 선결 과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 법학과에 계시는 서경림 교수님의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서경림 : 앞에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자란 또는 보충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화를 논한다고 하는 것이 좀이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야말로 전쟁을 한 번 경험해 보면은, 전쟁터에서는 법도 없고 인륜도 없고 그야말로 파피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쟁을 겪어 보면은 그야말로 모든 회생을 다 바쳐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뼈저리게 되죠. 르래서 평화는 전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않는 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화는 누가 갖다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가령 제주도의 평화를 가져온다 하면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평화의 의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건지나 아마 그런 것은 우리가 더더욱 제주도의 긴역사를 보면서 그런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주도 사람도 본래 성향적으로 평화에 대한 평화사상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우리는 되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몇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68년입니까 민란이 한 번 있었고 1901년에 이재수의 난이 있었고 1948년도에 4.3사건이 있었고 그게 4-50년 간격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전쟁상태가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수의 난도 제주도 자체적인 난용

이러기 보다는 외부적인 작용.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가 상당히 잘못됐죠, 아직도 이재수의 난에대한 평가도 제대로 합일된 평가도 없습니다. 그당시에만 하더라도 천주교도 그다음에 사미사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그 당시에 숨진 천주교도들은 순교했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가해한 사람에게는 의사라고 하고, 4.3 사건도 지금 규명중에 있습니다만은 좌우익의 대립이라고 하는 아지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않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외부에대한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4.3사건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격변기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않고, 전쟁상태로 돌입시키지는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선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제주도가 외부적인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걸 좀 정리를 해야되겠다. 따라서 평화교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국제간의 이해정도로 끝나서는 않되는 것이고 우선평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각오한다고 하는 결연한 자세가 되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화교육도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를 모색하지않으면 안되겠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외부적이미지를 내세울때는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가면은 모든범죄도 없고 밤12시가 되면 혼자 다녀도 누가 털어가지 않고 주민간에 그렇게 갈등도 없고 그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외부에 심어주어야 할 것인가 이게 1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해도 늦지않겠다.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고성준(사회) :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교수님께서 평화을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말씀을 유익깊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 평화이미지 구축이라는 것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송재호 전제주발전연구원 연구팀장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 앞서 토론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제기수준에서 다 말씀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틀리것은 없고요 중복됐지만은 고민했고 준비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화의 섬을 바라보는 것을 크게 세계적 시각 국가적 시각, 지방적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국가적 시각, 세계적 시각은 사실은 우리에게 힘으로 설득하거나 또 하기가 실제로 실천하기는 벽이 높게 가야 하는 느낌이고요 지방적 시각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됩니다. 무엇보다도 섬, 우리제주도같은 경우는 우리의 논리로서 중앙의논리나 세계의 논리를 대처하지 않고서는 항상 반발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문인수 국장님께서도 도민 합의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더 발전시켜서 평화의 섬을 바라보는 지방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러면 지방의 논리로서는 크게 평화의 섬이 장기 비전으로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두가지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가야될 방향을 평화라는 틀에 묶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부지사님께서 잠깐 고민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대 사령부의 유치 앞으로 자유왕래의 해상로의 확보가 중요한 21세기에 어떻게 될텐데 해양시대고 해서 여기서 합대사령부는 사실은 적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합대사령부를 갖놓는 다거나 공군사령부를 갖다놓는 것은 배제

되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이걸 평화의 섬에 틀로 확고히 함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져오고 설득을 하는 데도 소위 세계적인 표현으로도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비무장 비군사화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틀로서 지방의 논리를 확고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광분야에서의 평화의 섬이 대단히 의미있는 사실로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형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에는 관광의 편익의 극대화에는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관광이라는 현상이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 영향도 기실이 많습니다. 신중한 준비와 계획이 없으면 사실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의 환경을 파괴시켜버리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관광이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관광 자체도 평화를 해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평화가 해치지면 관광 자체도 기능이 될 수 없는 야누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평화의 틀에서 관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은 아까 내적기반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인간과의 평화가 소중하니까 결국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 객이 우리 관광지에 와서 우리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이루는 현상이거든요 인간적에서는 그렇다면 그런면에서는 인간관광 측면이 당연히 평화의섬 구상내에서 우리의 한 주제가 될 것이다. 또 더 인식을 확장해서 자연과의 평화라고 본다면 생태관광적 측면이 또 그린 투어리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대안 평화의 섬 내에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 논리로서 두 번째 논리는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정책적으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일정부분을 이렇게 해 주겠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공약을 하신 한가지 사항이 관광자유지역화 방안입니다. 노비자 직항 면세지역으로 대표되는 이 관광자유 지역 방안이 일정부분 소위 중앙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고요 두 번째는 국제회의 장소로서 제주도를 가꾸겠다는 지정의 의미의 제주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가꾸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자유지역화와 국제 회의 도시를 묶어서 가는데 결국 마지막 초점은 우리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것이 교류자유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광을 우리가 지역살림에 어떠한 중심으로 가면은 필연코 따라붙는게 정보화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사실 정보화가 전제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결국 상품 자체도 정보로 구입하게 되고 돈도 지불도 정보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화기반이 필수적으로 관광 산업진흥에 붙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일종의 국제 무역 상담기능, 금융상담기능, 그런 그 선적은 제주항이라든가 다른데가 아닌 부산항도 쓸 수 있고 목포항도 쓸 수 있고 아무데나 쓸 수 있겠지만 소위 정보화를 바탕으로한 상담기능만은 제주도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교류 자유지역 개념으로 제주도가 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간 단계적의미에서의 평화의섬 구성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방적 시각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면에서 저는 보고서 상에 사실은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왜 평화의 섬이냐라고 외부에 설득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막연합니다만 역사를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게 일단 항파두리에서 우리는 원나라라고 하는 세계 대제국과의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미사비에서

불란서라고 하는 세계제국과 인연을, 또 가까이는 4.3에서도 미국이라는 대체국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알려지지않은 작은 섬이 이처럼 세계역사에 어떤 큰 제국과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섬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이런것들이 기실 평화와 연관되어 있지 안나 생각 되고요, 그리고 김형운 의원님께서도 보충 까지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 습니다만, 4.3이 부분은 아주가까이는 내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준(사회) : 예 고맙습니다. 여러 귀담을 이야기가 많습시다만 특히 평화의 섬이 중간단계로 평화의 섬이 의미가 있는 얘기라든지 교류 자유지역이라는 미래 문제제기, 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평화의 섬 논리등 귀담아 들을 얘기가 많은 것같습니다. 그러면 신행철 사회학과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신행철 : 우선 제주의 이미지를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구축을 하는 데 아주중요한 계기로 이 모 임이 되지 않을 까하는 마음이 들고, 워크샵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완성된 발표라 기 보다는 미완성된 주제를 가지고 뭔가 완성된 주제로 만들어 보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론적인 얘기로 우선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용어가 담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예요, 잘하지않 으면 혼란스러운 개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보려는 평화의 섬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그 성격을 약화시킬 소지 없지안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런의미에서 김교수가 제시한 세 개의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 세 개의 모델을 따로따로 돌것이 아니라 가칭 통합모델 해서 묶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래야만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이 포괄성을 지니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모델 셋중에 하나를 택 해 버리면 개념 체계 갖는 포괄성은 좀 반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또하나는 논의 자체가 너무 당의론 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 어떤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의론적이라고 하면 실천적으로 보면 매우 주요 한 의미를 갖지만 적어도 학술 적인 논의를 함에있어서는 비과학성이라고 할런지 너무 가치지 향적인 논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워크샵형태로 진행 시킬때는 평화의 섬을 당 의론적으로 생각했다 할 지라도 과연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근거가 뭐냐? 이런 것을 꼼꼼히 케나가지 않으면 안되리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이 방법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평화의 섬을 주장할 때 마구 주장해서는 안되고, 다른 곳보다 제주가 평화의섬 이 되어야하는 비교우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다음에 평화의 의미를 따질 때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무장하고 관련 시켜 비무장이다 이건 맞는데 하지만 비폭력하게 되면 투쟁을 부정하거든요, 이것을 대외적인 형태고 보면 전쟁이 극단화 되지만 대 내적으로 보면 계급간 투쟁인 것 처럼 집단과 집단간의 투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내 적인 평화의 모습도 담는 개념이 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생각되어 지는 것은 평화의 섬이라 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제주사회의 소위 복지와 번영을 이룩해 보자는 의미라고 본다면, 선언적의미의 평화의섬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그러하면 그런 목표를 주장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아까 얘 기한것입니다만은 문화가 그러하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함으로써 과연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서

자격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제주가 갖는 어떤 이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체계화 해줘야 하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섬이 실현될 수 있는 시점은 21세기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한 번 예측도 해봐야 됩니다. 예측하는 과정에서 특히 비군사적인 방향 세계화시대 어떻습니다 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냉전체제가 종식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평화라는 주제는 어느라에서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선점해보는 의미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텐데 그래서 아까 김승석 부지사님이 말씀했던 군사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군사시설하면 무조건 전쟁할려고하는 준비다라는 것을 앞으로21세기에는 하지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화유지군이 우리 제주도에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준다. 평화유지군의 역할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화 그 자체라고 하면 그런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평화의 섬을 만들려면 통합모델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성준(사회) :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평화의 섬가지고 경쟁 지역이 많은까 비교우위를 열심히 해야할 것이라는 말씀도 좋고 21세기와 연결 시켜서 평화의 섬을 봐야한다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순서로 양길현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양길현 : 처음에 출발은 당연히 비군사화이고 비폭력이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처음부터 출발할 것입니다만은 평화는 애초에 종교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가말이죠, 우리가 현세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평화가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고 인권이 억압되고 공포에 있고 그러면 평화가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되야 평화가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빈궁하면 평화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을 것인가? 혹은 가진자의 횡포가 심하다던가 그런의미에서 아마 경제적으로도 어떤 완벽한 평등이 안되겠지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평화의 한 측면일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상대방의견에 존중해주고 관용적으로, 이런것들이 매사에 갖추졌을 때 그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면에서 모아져서 나오는게 평화가 아닌가? 그래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하고싶은 것은 제주도를 사실 지상낙원으로 만들자라는 말을 바꾸는 게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지상낙원으로 만들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두분선생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김부찬교수님께서 세가지 모델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신형철교수님께서 그걸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저도 상당히 김교수님의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데 마침 신교수님께서 통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교수님께서 정부차원하고 지방행정차원 그리고 민간단체차원 이렇게해서 세분류로 나누어 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주도의 아픈역사 그리고 현재의 제주도에 사는 분들의 아픔, 희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차원의 실용적으로 방안이 접목이 되어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어떤 호응, 지지가 결집이되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4.3을 치유하는 측면 이것이 평화로 가는 측면 이아닌가 합니다. 저가 여기오기 전에 타이타닉 영화를 보고왔는데 상당히 비극적이죠 하지만 그 비극속에서 러브스토리를 찾아내서 온 미국을 열광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4.3같은 경우도 그런식으로 비극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평화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어떤 것을 넣어서 세계에 알리면 좋지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주대학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쪽으로 연구하시면 좋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군사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제주도는 군사가 들어오면 안된다. 역설적으로 제주도를 군사화 시키면은 제주도의 평화 세계의평화 혹은 세계평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받아 들일것인가? 그전에 우리는 제주도는 군사화되는 것은 죽어도 안된다. 하지만 대승적으로 제주도 군사기지해가지고 그게 뭐 평화유지군든 이름은 좋습니다 어떤식으로 나오던지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가능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대승적으로 살신성인 할 수 있는 자세는 되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성준(사회) : 예고합니다. 강근형교수의 페이지에 민간단체부분이 짧게 거론되는데 보고서에는 조금긴니다. 제주도 4.3을 다루는 제주도판 타이타닉을 다루는 것이 어떠냐하는 결국우리 양교수의 얘기중에는 발상의 전환 이라든지 인식의 전환을 통한 평화의 섬의 접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입문철

양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년전보다 상당히 깊이있고 구체화된 진보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한느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과연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평화라는 개념이상 보편적인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주는 이것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도 갖추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분들에게는 평화라는 개념이 매우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 수 밖에 없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자체가 서구의 개념. 서구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개념이지만 우리에게는 억지로 만들어진 조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른말로 평화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성대같은 것 말입니다. 평화의 섬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될 목표로서 또는 가치면에서 매우중요한 주제임은 분명하지 않는가 그러나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문총무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평화를 우리제주지역에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곤란하겠다.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도 곤란하겠다.

그런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아까 타이타닉 이야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생각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목적원에 제주인들의 한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저는 몇번씩 관광안내를 하면서도 별다른 감흥을 못 받는데 타지에서 온 신희부부라든지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그것이 제주인들의 삶을 전세계적인 가치로 공감할 수 있는 예술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원의 통치 부터 왜구, 사실 저

는 민속촌에 갔을 때 제주도에 굴뚝이 없는 이유를 아느냐, 왜구침략이 무서워 가지고 그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밥을 짓다보면 왜구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굴래서 우리는 굴뚝도 못만들고, 밥을 짓고 시키면 집에서 연기 짹짹 마셔가면서 살아왔다는데 상당히 깊은 뭔가를 가졌는데. 이런 왜구의 수탈이라든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내세의 만란이라든가. 4.3의 이재수난도 마찬가지고 4.3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제주인들의 역사적인 비극과 또 제주도민들의 갖고 있는 석화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한들, 99계곡 99일출봉, 99봉오리라든지 또 어리목으로 가다보면 송덕수가 하나 있죠 얼마나 못먹었으면 정말 도토리 내준 나무에 감사를 다 드리느냐 또 오백장군의 설화 어머니를 죽 끓여 먹었다는 참 비극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 또 산방역이의 눈물이 약수가 되어서 내린다는 이런 한들, 이런 한 맺힌 것들이 형상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저는 제주인들에게 있어서 제주도의 삶이 평화가 없었다는 비평화적 또는 반평화적인 섬이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히로시마가 역설적으로 자기네들이 뭘 내세울수 있었습니까? 단 한가지 희생자였더라는 것만 가지고도 전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룩할 수 있던 것 처럼, 우리 제주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들을 평화를 갈구하는 제주인들의 모습으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주인들의 모습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면 지역적으로라든지 관광객원과 여계를 한다든지, 모슬포 비행장, 이런 것도 훌륭한 해안가에 있는 잠수함 기지라든지 이렇게 전부 하나가 하나로 형상화될 수 있는 박불과 건립의도 그런 아이템을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해낼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도 지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거를 남에게 줄 순 없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제주지역 사회가 그 예로 아직도 이재수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점 또 4.3에 대해서 아직도 도합을 이루지 못하는 점들을 해 놓으셨는데 이기회에 이재수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 천주교측에서는 상당히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고 또 그런 역사적인 의무도 자각을 해서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천주교측에서 자체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우리 천주교측의 잘못들이 무엇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지적들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회에 도민 사회에 천주교측의 잘못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청하고 화해를 청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보자는 얘기 까지도 거의 거론 비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심포지엄을 가졌을 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저는 이재수난의 단순히 천주교의 당사자라고 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이것이 4.3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이정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재수난에 대해서도 천주교측의 잘못들을 교백성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은 지적하지 말라 우리편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이미 그런 논문도 그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식으로 아직도 그런 단계니까 그런시도가 작년에야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정도니까 그리고 4.3에 대해서도 범도민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갈라지고 빠지고, 그건 충분히 아직도 우리 제주도민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합의를 제대로 도출해내지 못한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역량부족을 지적해주는 이야기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신문이가요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원주민들의 관습법을 현존하는 오스트리아의 법체계보다도 더 존중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부족은 사진을 찍으면 영혼을 빼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기

자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추장이 카메라를 빼앗아서 부숴버렸습니다. 기물 파손은 징역형을 살게 돼있는데 그 법정에서 이것은 그들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부죄선고가 내렸다. 그런데 법체계상으로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주도 특별개발법이라든가 시범자치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작업을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피오하추구기구 또는 갈등해소기구, 평화를 추구하는 특별한 제주도민들만이 가진 이런 관습법 같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원로들의 모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지역 사회에서의 갈등구조는 판사가 판결한 것 보다는 시민들에게도 권위를 가지고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존재한다면 제주지역 사회에서는 정말 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지나번 범도민회에서 화북지구에 관련한 것들을 시민단체가 증재를 해낸다 하는 제주지역사회에서도 관광민과 지역과 지역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식의 조정역할을 해낼수 있는독특한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자유무역항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폭력, 마약, 매춘등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사회 내에서도 갈등 구조들이 생겨날 수 있다. 제주도에도 노사갈등이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자본 종속과의 문제도 앞으로 예상될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법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것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덜 익은 구상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완성된 정체된 개념이 아니라 발전하고 도상에 있는 개념이고, 과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설 익으면 어쩌나, 설익은 과정에서 함께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심포지엄도 하고 노력도 하다보면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게 마련이고 그 과정이 피오하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김대통령이 평화의섬에 새해서 이미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여 공약도 내걸었고 지금 차원에서라도 도와,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지금 사태에서라도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성준(사회)

네, 고맙습니다. 임문철 신부님께서 평화를 화해와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고 또, 몇가지 좋은 제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 신부님은 범도민회 대표의 한분으로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실겁니다.

이복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과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구하고 하는 큰 목표도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데, 실현이 가장 어려운 것도 사랑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실현이 어려운 것을 여기 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정책에 대한 것은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 내에 계시는 여러 학자님들의 좋은 이론의 바탕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표명을 할 때, 이런 것이 나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되어 이것이 이론에서 시작되어 이론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

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평화의 섬을 세계적으로 표명을 했을 때, 그 분들이 과연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인정을 하겠는가,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다면 그렇게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 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걸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선언을 하고서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현실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인지뢰방지 협의회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세계 약 220개국 정도의 나라 중에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인지뢰방지 협의회도 가입을 안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볼 때, 과연 한국에 평화의 섬을 인정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수한 의미 말 자체로서 평화의 섬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평화의 섬이나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말 자체 그냥 섬이 되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들이, 사실 발전과 개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아까 무슨 자유무역지대라든지 자유관광지대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순수한 의미의 평화라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정말 개발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노 비자 지역이 되고, 모든 세계인들이 마음대로 왕래를 하면 모든 범죄들이 들끓을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수한 의미의 평화의 섬이 되려면 아무것도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그러나 발전적 의미에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생존권적인 의미에서, 제주도가 관광도시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도시가 세계 태평양 가운데 있는 평화의 섬이라 해서 찾아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다른 것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영종도를 갔다 왔습니다. 영종도가 개발되는 신공항이 1700만평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양의 준비도 전혀 없습니다. 항공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는 1700만평 위에도 공항을 짓는 데 21세기형 공화국을 건설하고 이쑈는데, 예산으로서도 저기가 상상치 못할 예산입니다만 활주로의 길이가 4200미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활주로를 갖추고있는 그런데고, 배후도시가 컨벤션센타를 비롯해서 모든 회의 산업체, 전자 산업기지 유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오는 21세기형 비행기는 4시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4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정말 촌음을 아끼기 위해서 왔는데 과연 제주까지 올것인가? 그리고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과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내 국회의원,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이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힘이 있어서 뒷받침없이 평화의 섬이 무의미하다, 정말 선언적인 의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도민의 공감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정책의 입안자를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어떤 평화의 섬으로서 여기 제주도만은 모든 시설의 위치라든지 회의 산업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의 유지군의 유지라는 말에 대해서입니다. 이라크 사태를 보면 이라크 가 왜 이번에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느냐, 중요한 무기가 있었고, 거기에는 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순수한 입장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언론지상에 보도가 된다면, 유치 노력의 행정차원이라든가 또, 학자들이 선블리 발표를 했다가 제주도

에 개발법이라든지 4.3의 문제처럼 또다시 제주도에 서로 고통의 시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군사력이란 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면 목표는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평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선불리 이런 데서는 거론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론적인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또 각계에서 도내 뿐만 아니라 도외, 정부의 부처라든지 서울에서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지막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준 (사회)

고맙습니다. 네 이복만 제주시의회 총무위원장님께서 이런 논의가 선언적의미에서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덕순 연구 위원님의 얘기를 들겠습니다.

양덕순

저는 평화의 섬 구축전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중에서 대외적인 관계만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과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무국경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국경화 경향은 국제질서 형성의 일부분이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이단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평화의 섬 구축에 대한 논의와 워크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이미 국가의 울타리 없이 세계 여러지방과 직접적인 경쟁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제주도는 지정학적인 입지하고 동북아를 둘러싼 힘의 균형상 동북아의 협력체제의 중심축을 이룰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생각해낸게 아마 평화의 섬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제주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전략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설정을 해야될게 개념정리의 우선정립이 되어야 합니다만 어떠한 개념이 정립되더라도 이러한 제주 평화의 섬을 구축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수단적인 문제는 항상 제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교수님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라는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3가지 주체별 역할은 내생적인 주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평화의 섬 구축은 외생적인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국가 타지방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4개의 변수 속에서 평화의섬 구축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닌.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러한 지방정부측에서 나머지 주체별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적인 노력을 자임하여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후원적인 지원이 도민의 합의에 의한 방향설정이 명확히 확립된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한 후원자적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가계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누에 띤 것이 제주후원의 결성이라는 겁니다. 즉 제

주 친인사로 제주를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교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분위기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 후원회의 멤버를 단지 국내 인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평화의 섬 구축이라는 것은 국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가 항상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측면에서 제주를 찾았던 외국 정상들도 있을 것이고 외국의 저명인사들도 있는데 이들은 'The friend of Che-ju' 즉 제주 후원회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포함시켰을 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방안은 마련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지금의 현 시대는 지방정부가 국제 질서 형성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평화의 섬 구축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민간단체의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 구축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관계 더 나아가 국가적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제주가 동북아 협력체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화의 섬에 대한 구축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협력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성하기보다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사실 이러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방정부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더불어 제주의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면 제주가 평화의 섬을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반정립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평화라는 것은 신뢰의 기반에 의해서 조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뢰라는 것은 역시 교류를 통해서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민간단체간의 상호교류 프로그램이 민간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동북아에는 여러 가지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단체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 현황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거나 또는, 평화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또는, 빈번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양 지역간의 심리적 연대감이 형성이 된다면 제주도가 말하는 평화의 섬 구축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준(사회)

특히, 해외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평화의 섬 접근해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지훈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은 이미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plan으로 잡혀있지 않았고, 단지 국가차원에서 요구하는 청원의 수준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당시 그렇게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군사기지가 계획이 철폐되면서,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87년도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 6월항쟁 이후에 4.3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4.3의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개념이 그 당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참 궁금한 것이 왜 갑자기 지금시기에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이 크게 부각되게

되었는가, 작년부터 이루어진 섬에대한 논의,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이 평화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섬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도 많이 가지면서 저는 평화의 섬 논의는 분명하게는 4.3의 해법에서 나왔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기서 제시하고 계시는 4.3평화공원이나 박물관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평화의 섬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는 단순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갖는 것도 좋지만 4.3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조치가 선행될 때만이 평화의 섬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채로 공원이나 박물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피오하의 섬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도민적인 에너지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시했듯이 오히려 평화의 섬과 4.3에 대한 해법은 같은 측면에서 시급하게 50년의 제주도민의 한을 풀 수 있도록 가시적인 정부차원의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도민적인 합의가 집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교수님께서서는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나 평화추구적인 내생적인 지역개발모형과 전략수립을 위한 전제로서 평화의 섬이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평화의 섬을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나 평화추구적인 내생적 지역개발의 모형이 먼저 이루어져야 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만 하더라도 제주도가 내세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예를들어 장애인들의 천국, 노인들의 천국, 노동자와 농민들이 쉽게 저렴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관광휴양지, 비싼 실버타운 같은 것보다는 가장 저렴하게 수용할 수 있는 대중용 실버타운을 국가차원에서 건설하든지, 지방청에서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하는 작업, 예를들어 일본의 국민숙사같은 유스호스텔을 저렴하게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쉽게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휴양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평화의 섬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평화의 섬을 선언한다는 것을 뒤집어서 거칠게 얘기하면, 평화의 섬을 선언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되는가? 그렇게 한번 되물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관광개발이 진행되면서 요즘 청소년 범죄가 확대되고 있고, 예전의 삼무라는 제주의 표상 자체가 실종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를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섬을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특별법의 정신에 나타난 도민 주체의 개발과 도민들이 잘 살아야 평화도 논의할 수 있죠. 외부적으로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면서 도민들이 잘 못산다든가 자연환경이 파괴 된다든가, 향토문화가 계승발전이 안된다고 하면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가하는 측면에서, 평화의 섬을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성준(사회)

평화의 섬에 구현에 대한 내적인 여건의 문제를 강조를 해주셨고,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할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성수

실천전략으로서의 기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현재의 시대적인 흐름이 세계화, 개방화라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제

주도가 고립지역으로 남아있으면 전략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유지가 더 쉽습니다. 오히려 개방하면서 평화를 부르짖으면 전쟁이 아닌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학술문화 관광차원에서 평화섬 모델이 우리가 내생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수준의 열의에 따라서 조정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지 일관성 없이 잡다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잘못 평화의 섬 하나로 오히려 제주도의 변형과 발전을 위해서 본말을 흐리게 하는 지엽적인 문제도 되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평화섬 구축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경제위기가 도민 피부에 와 닿지 못합니다. 열의를 가진 시민단체라든지 오늘의 워크샵에 계신분들처럼 어느만큼 전도하느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서 앞으로의 세계는 영토적인 세계가 아닌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다. 제주도의 환경운동이라든지 혹은 마약없는 사회라든지, 국제지뢰제거운동까지도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영토분쟁을 하는걸 보면 이미 그런 걸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 노하 우 라든지 역사를 갖고 있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수입해다 여기다가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국제적인 명성과 이미지를 갖기란 힘들니까, 새로 떠오르는 시장에 먼저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널려 있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일본이 노력한 것처럼 일본이 UN지역개발센타를 하려고 나고야에 자기네들이 건물짓고 돈 들여서 사람들 교육시키고, 완전 무상봉사를 했는데 그런 것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고, 특히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한구구의 최근 경제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여과 없는 장치가 가질 수 있도록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역적으로 폐쇄된게 아니라 정보가 걸러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치부를 노출 안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방화된 정부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발표자들이 평화이미지 구축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공원아리든지 박물관 등의 구상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 다른 이미지를 갖는데 어떤 분에 토론을 보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약육강식이 있고, 치열한 삶의 투쟁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미지는 평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말입니다.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느끼는 것과 포장 전혀 다를 수가 없다. 예컨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분쟁이 제일 많이 개입되어 있지만, 평화의 정의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평화의 수호자로서부터 미키마우스, 코카콜라가 잘 팔리는 것처럼 관광은 평화라는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100%평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을숙도처럼 몇가지의 사진 영상이라든지 제주도의 아름다운 것을 보이면서 평화의 이미지를 상술로 이용할 것만큼은 충분히 내세울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공원, 박물관, 민속촌 건설이라는 것이 재원이 어느만큼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만 그것을 신중히 해야하고 잘못하면 전쟁과 평화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의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건물을 세웠을 때 이미지를 잘못형성한다면 오히려 평화박물관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미국사람들 보기에 히로시마 원폭터진 것은 자기네의 죄상을 노력해서 그렇게 많이 불려고 하지 않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자칫 형상화가 문화적인 이단화라든지 민족감정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결국은 만드는 건 좋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될거나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짜내라 하면 아이디어 짜내는데 허송세월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퍼오하의 섬이 되든지 국제화, 개방화의 자유로운 출입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방어적인 태세가 먼저 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 내년 중국이 관광객 10인 이상 단체 노비자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전세계에다가 이미 개방화가 되어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게 될 경우 한달 동안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사람이 현재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들어오게 되었는데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범죄라든지, 사상, 안보성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들의 등어올 광우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가 와서 세계적으로 자주 삼류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라든지 국경 있는 장벽에 대한 투자가 너무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은 적당히 열었고 수준은 좀 그것에 맞춰갈 수 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점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출입에 관한 것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사람에 관해서는 만족한다고 본다면 월의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국제 자본이 들어 오도록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 금융이 늘 수 있는 협상 조정능력에 관한 것을 지방정부가 어느만큼 중앙정부에 할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구화가 학술 문화라든지 관광에 다음단계에 우리가 목표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유치를 시켜놓고 노하우를 갖게 하면 너무 시간이 없다 한국의 금융 전문가가 없어서 IMF를 맞았는데 제주도에서 그러한 자본 특구화 기업을 집어 넣어 봤을 때 어떻게 누가 조정할 사람 이 가운데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를 초청해 올 수도 있지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희생할 건지 아니면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거꾸로 평화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평화도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로적인 의문을 제기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고성준 (사회)

평화의 실천전략으로 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대권 (토론)

저는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비전으로서 채용을 했습니다. 평화의 섬에 대한 하위개념으로는 첫 번째로는 문화의 섬, 두 번째가 관광, 세 번째가 복지의 섬이었습니다. 4.3문제 해결의 완결편은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해주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상규명, 명예외복 다음에 4.3의 여기서주는 교훈은 평화의 중요성이고, 거기에 대한 섬 주민으로서 평화의 섬의 영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도민들에게 있는게 아니라 그것은 4.3의 역사가 우리에게 준 혜택이다 말이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중립화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사보호시설이나 군사관련시설의 축소, 즉 냉전체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중에서 제주지역에 한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고리로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고자 할 뜻이 있다하는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있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아태재단을 설립하면서 동아시아에 평화문제도 관심을 가졌지만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문제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현지에서 평화섬에 대한 논의가 그 내용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내용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그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는데, 거기에 보면 화해와 협력의 평화지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비무장지대에서 건설해서 통행을 자유롭게 하고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인데, 현실적으로 100만의 군대가 대치하는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는 것이 지금 1단계 조차도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군사시설 또는 병력과는 동떨어진 제주도나 나진, 청진 쪽의 경제 특구 같은데서 서로 지역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제주도 무엇을 얻고 잃을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헌데 정치적인 구호로서 평화의 섬을 이해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국제 정치학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세계화가 한국에서만 통하는 세계화의 의미로 왜곡,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분쟁지역 또는 경제적인 난민, 'boat people' 같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평화의 지역으로 해서 올 경우에, 우리가 그들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지, 평화의 섬으로 선언한다고 하면 일정한 국제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섬 개념이 정치적인 상징조작에 그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 과연 우리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건지 재고를 해보아야될게 아닌가 하는 현실적 생각을 했습니다.

고성준(사회)

부안근

첫째는 개념정의 문제입니다. 평화의 섬 개념에 대해서는 집약적으로 세련화시킬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모델의 적용문제입니다. 중립화의 경우는 관할권 형사의 제약성 때문에 대체로 중앙정부가 좋아하고, 응해줄 리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비군사화전략의 경우도 지금 힘의 우위에서 미국이 견제한다는 관점이고 우리 정부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국제정치학적으로 정말 가능하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모델은 현실적으로는 당장 적용될 순 없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가지 모델인 경제특구화 모델이고 또, 하나는 관광문화적 차원에 있어서의 평화의 섬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이 두가지를 먼저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법체계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부를 실험적 관점에서 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개발 특별법개정안에, 그 내용을 한 번 포함시킬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파급의 영향입니다. 평화의 섬 선언 내지 지정 선포에 있어서, 지금까지 긍정적 측면은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연구도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측면의 경우는 이것만큼 강조되고 연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을 경우에는 마약, 범죄, 매춘, 외국문화 모방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 그래서 관광경제 문화의 모델이 평화의 섬을 설정을 한다음에 그것이 성곡을 거두고 대외적으로 상황이 더더욱 좋아진다고 하면 극우적으로 바로 중립화 그리고 또 비무장화의 정치군사적으로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준(사회) :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토론 그리고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강교수님과 김교수
님께서는 5분안에 말씀해주십시오

강근형 : 개념의 문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서론에 간단하게 궁극적으로는 평화지대나 중
립화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교류센타라든가, 경제특구, 복지의 모
델과 또 학술교류 관광의 모델 합친 것이 현재 상태의 평화의 섬의 내용이 아니겠는가하는 말
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평화의 섬 개념이라면 우리는 중립화나 평화지대를 내세우는 중
앙정부에서 허락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을 내세우면 오히려 견제를 받아서 되지도 않기도 때
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행하는 목표가치로 두고, 현실적으로 이 수준 정도면 충분히 도민들이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인정해 줄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도 그 정도면 바람직한 것이라다
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목표 가치라든가 수단
가치 이런 걸 다시 쓸 적에는 더 세분화해서 하나의 모델이라도 연구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
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셨습
니다만 저는 이것이 하나의 전략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발전해 가는데, 컨벤
션센타도 만들고, 그런 국제회의 많이 유치해야 되고, 잘 안되면 계속 적자 볼 것 아닙니까. 그
럼 국제회의 유치하려면 우리 만의 능력으로는 안되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유치하도록 해주시
오”도 해야되고 또, 세계 여러 국제기구라든가 여러 지역 같은데서도 가서 회의하게 되면 “우
리 제주와서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로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는 제주의 평화의 섬이고, 이런 것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좋다고 설득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지, 인간공동체 이런 것을 지향하고, 내적으로 내생적인 개발이라든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섬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 계셨는데,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만 아무튼 현
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닥친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전략적인 면에서 한 번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저희들에게 plus가 될 것이 아니냐, 도민들도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
각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는 과연 어떻게 유치하겠느냐, 사실 난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조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도에서 어떠한 국제기구나 중앙정부에다가 뭐 유치
해 달라고 노력 안해봤을 겁니다. 유네스코라든가 UN본부에 우리 도가 내내 내가지고 우리 제
주도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지역 이것을 다 마련해줄테니까 당신들 무슨 기구를 하나 할
거 있으면 이쪽에서 유치하라 동북아시아에서 지역개발 무대 할 생각있으면 우리는 모든 편의
를 제공할테니 와라하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의 제 친구가 그걸 유
네스코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나 동남아 태국 같은데 몇 개 있거든요. 동북아쪽에서
해야되는데 이걸 어디 나서가지고 자기네가 뭔가 주겠다고 하면 충분히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이제 이런걸 해야하고 또 중앙정부에 그런걸 외부부나 이런데 할려면 사실 이
것도 전략에 문제거든요. 평화의 섬 우리가 해놓고 대통령도 평화의 섬 한다고해놓고 당신네가
상징적으로라도 몇 개 좀 이쪽에 그런거 유치라도 해주어야 할지 아니요 하면 그게 오히려 설
득력도 갖지 않을까? 더 그런들이 제주 관광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떤 관광의 수준의 질을
높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회의가 많이 되고 이러면 놀고 먹는 관광이 아니라 문화관광·학

슬관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은 이제 제주도나 이런데서 해야된다고하는 전략의 문제로 평화의 섬을 지금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는 두더라도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하는 애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평화를 애가하는 것은 굉장히 국제정치에서는 이상론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평화라 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갖추어진 무슨 제도나 협력 대화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상적인 것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줄벨르스가 공상 과학 소설에서 잠수함 애기 하니까 좀 지나니까 잠수함이 되서 지금 다 타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역사를 보면 이상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이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인거고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국제부에서 몇 년전에 또는 이지훈 위원장님 애기처럼 평화의 섬 만들자는 운동으로 내거니까 이게 관심도 갖게 되고 우리처럼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도 이거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글도 써보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것들이 도의 부지사님도 와가지고 관심도 있다 말이지 한 번 해보겠다 말씀도 하니까 구체화되는 것처럼 이런 이상이 출발해서 현실화 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의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그럼 김부찬교수의 마지막 5분을 들겠습니다.

김부찬교수 :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발표한 내용도 본격적인 논문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평화의 섬에 대한 어떤 추진 전략에 대한 토론자적 입장에서 일단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완성되지 못한 조학한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비판을 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연구하는데 많은 참고로 삼고자 합니다. 저의 발표에 대해서 또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평화의 섬의 개념 이것이 좀 더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겠다 또는 좀더 세련되게 체계화되어야겠다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제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설정이 되어진 것이고 또 주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부적 대내적 이유만으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도로 설정이 되어지는 것인가 즉, 국제적인 맥락이 보다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점에서 중추적 의미 즉 국제법적 국제정치학적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평화의 섬이 선포되어지는 혹은 평화지대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본래의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몇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어떤 평안 안식 그런것이기 때문에 인류에 보편적인 그러한 하나의 목표이고 우리가 실현해야 될 가치가 된다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쟁이 없는 그러한 의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학문적인 국제정치학적인 의미의 평화가 아니고 그러한 본래의 정말로 진정 인간이 소망하는 평화를 누구나 소망하고있고 그러한 의미의 평화의 지대 혹은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연한 목표는 평화의 섬이다 평화의 지대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하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화의 섬이다

평화의 지대다 선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대신 현실적으로 평화의 섬이다 평화의 지대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측면에 평화의 섬, 평화의 지대 의미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대신 평화의 의미가 과연 어떻게 이해 될 수 있느냐하는 점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의미로써 예를 들어 정치적이 의미뿐 아니라 경제적 의미도 담을 수 있고 문화·관광적 의미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진 내용중에 그렇다면 제주에 평화의 섬 선포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적어도 한국내지 한반도 내에서에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고 나아가서 주변국가 내지 국제적인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도 앞으로더욱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점도 상당한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한 그러한 모델이 과연 어떠한 것이겠는가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은 어떠한 것이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모델에 있어서에 가능한 모델 이것이 선택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좀 불안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통합적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저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즉 분리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조금 짚어놓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통합 모델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위성 문제하고 연결됩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실천 가능한 추진 가능한 평화의 섬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과로서 혹은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과정 그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본래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만 부정적인 측면 악영향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의 섬 평화의 지대라는 것은 물론 평화의 당위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평화는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달성하는 방안은 크게 나뉘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적인 방법이고 둘째는 평화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즉 힘을 통한 평화의 달성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의 달성과 힘이 아닌 그야말로 평화적인 방법이건 방법 가운데 굳이 평화의 섬이다 평화의 지대다 하다 해가지고 선포하는 이유는 힘을 통한 평화의 달성이 아니고 비평화적인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평화의 달성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인 평화의 달성이 평화의 섬 평화의 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분의 말씀중에 이것은 본질적인 논의 아니고 주변적인 논의로서 예를 들어서 제주에 군사기지가 설치됨으로써 또는 지역적 안보협력기구에 평화보장방안이 집단적 안보장체제라고 할 때에 그러한 지역적 안보협력체제의 본부가 제주도에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또는 다른 목적으로 군사기지가 제주에 설치가 된다면 물론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평화의 섬은 그러한 물리력을 통한 평화의 보장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달성하고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상당히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논하고 평화를 창출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다른 성격의 기구

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구를 제주에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섬 혹은 평화지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몇 분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은 배제되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성준(사회) : 지방자치단체입장이든 각 시민사회단체입장이든 저희연구소 입장이든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서 더 많은 만남이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평화의 섬의 달성은 그야말로 평화자체가 멀고 먼 여정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간적 공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연구소로서는 이 평화의 섬 문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오늘 제기 되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두고 많은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을 주시고 또 좋은 방향도 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